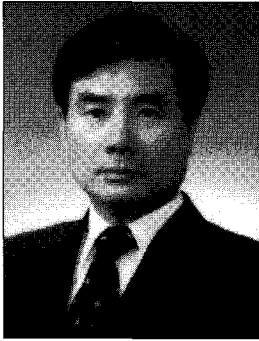


자원 재활용 친환경 경영, 업계 이정표 제시

국내 고지 펄프화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 정영섭
동일제지(주) 대표이사

자원을 소중하게 아끼고 재활용하는 대표적 친환경 기업인 동일제지(주)(대표이사 정영섭)는 1986년 설립 이래, 부단한 신기술 개발과 경쟁력 확보로 제지업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에 동일공업(주)으로 설립된 동일제지(주)는 창립 16년 동안 오로지 친환경적인 사업에 몰두해온 제지업체다.

동일제지(주)는 ▲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추구하는 동일 ▲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는 동일 ▲ 미래의 보장속에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동일 ▲ 폐지를 통하여 자원의 무한한 재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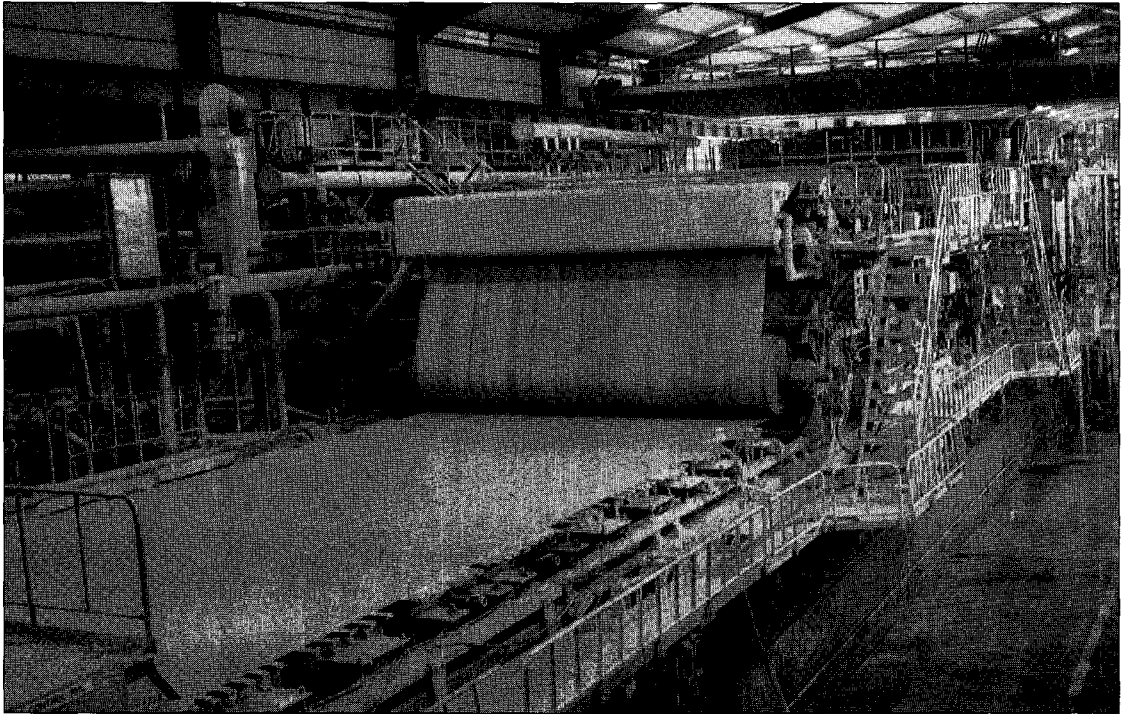
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동일 ▲ 환경을 생각하는 동일 이라는 비전(Vision)을 실천하며 업계 발전을 리드하고 있다.

지난 1992년 11월 동일제지(주)는 열린경영, 투명한 경영을 모토로 기업 장외등록을 했고, 1995년 8월 증권거래소에 상장등록하며 기업을 공개, 제지업계 선두주자로서 기업공개의 초석을 마련했다. 현재 동일제지(주)는 골판지 원지업계 시장점유율 7%로 업계 6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면지 생산업체로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콘디벨트 방식 도입, 수출 경쟁력 확보

동일제지(주)는 세계 최초 생산 신공법인 콘디벨트 방식을 도입, 각종 설비를 증설, 확장했을 뿐 아니라 하루 생산량이 250톤에서 700톤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997년 5월, 핀란드로부터 도입해 99년 2월 완공한 콘디벨트(압착건조방식 설비) 시스템은 국내 고지만을 가지고 표면 라이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세계 최초로 상업화한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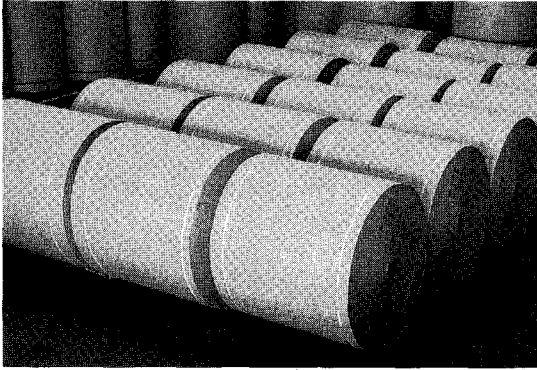
▲ 골판지 원지 생산업체인 동일제지(주) 공장 전경

특히 골심지만 생산하던 단일 형태에서 이면지와 골심지를 복합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했으며 고가의 펄프를 대신해 저가의 폐지류를 사용, 펄프 대체 수입효과 및 수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표면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게 됐다. 이로서 동일제지(주)는 환경에 있어서도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환경 친화적인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지난 2001년 7월, 세계 최초 신기술 개발로 N.T(New Technology)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제조·기술 면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했다.

현재 G-7 청정 생산기술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으며 폐지 재활용

에 따른 오폐수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한국화학연구소와 공동 개발을 시도, 현재 공장 폐수의 80%까지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이뤘다. 이렇게 세계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벤치 마킹되는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동일제지(주)의 비약적인 발전의 뒤에는 정영섭 사장의 경영이 한 몫을 차지했다.

“열린경영, 인간존중 경영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해왔다”는 정영섭 사장의 경영철학은 1991년 매출 244억, 당기순이익 12억이었던 동일제지(주)를 10년 후인 지난 2000년, 매출액 725억에 당기 순이익 123억으로, 매출이익 10배 달성의 금자탑을 달성, 전국 경제인연합회 선정, 2000년



▲ 동일제지(주) 생산제품

최고 경영자 대상, 2001년에는 우수 모범 기업으로 인정받아 석탑 산업 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I.M.F시기 도전적인 경영방침으로 (주)월산(구 무학제지)을 인수, 당시 하루 생산 290톤이었던 생산설비를 850톤까지 생산 가능하도록 비약적인 고도 성장을 이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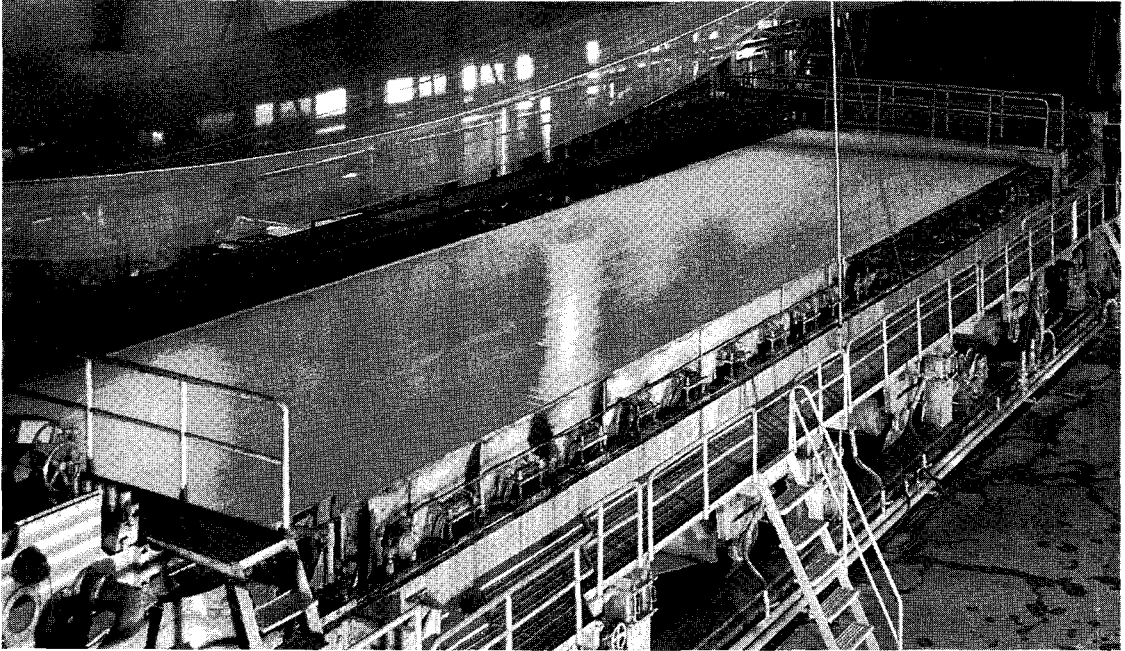
연구개발에 주력, 국내·외 특허 등록
동일제지(주)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비롯한 품질 경영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96년 12월에는 저오염, 무공해 청정 생산설비 기술 개발을 시작, 1998년 10월 완료했으며 골판지 처리 방법 및 배합 효소에 의한 생산 방식으로 국내 특허등록만 7건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캐나다 특허등록 2건을 비롯해 일본 2건, 미국 3건, 유럽 연합 3건의 특허를 등록, 국내·외 최고 및 최다 연구개발 실적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올해 획기적인 청정생산과 무공해 제로(zero)목표를 위해 연구에 주력한 결과 그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품질 경영 시스템과 품질 규격도 KSA 9001:2001 / I.S.O 2000을 인증·획득해 최상의 품질과 제품의 안정된 생산을 확보하게 됐다.



▲ 동일제지(주) 완성제품 출하 작업



▲ 동일제지(주)가 인수해 비약적 발전을 일궈낸 (주)월산 공장전경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동일제지(주)는 직원복지 제도가 여타의 어느 기업보다 월등하다.

정영섭 사장은 “내실경영을 통한 새로운 기업 문화 창출과 복지향상으로 생동감있고 활기찬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기업의 미래는 함께하는 직원들의 마음에 있다는 신념을 평소의 좌우명처럼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그의 경영철학은 경제가 어려웠던 I.M.F 때에도 직원 한사람 한사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조업단축이나 단 한명의 인원 감원없이 동일제지를 이끌었다.

현재 동일제지는 전체 사원의 63%가 회사 사

택 아파트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업원자녀학자금 및 주택자금지원, 기숙사 제공 등 종업원 처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화합의 노사문화 창출 운동을 전개, 2000년 10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 노사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1986년 설립 이래, 동일제지(주)는 환경친화 기업이라는 사명감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한 결과 차별화된 제품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세계를 향한 제지 전문기업으로 발돋움 할 것’이라는 동일제지(주)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